

# 복식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박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연구교수, 국어학 전공  
rich1125@hanmail.net

I. 머리말

II. '복식명'의 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

III. 국어사적 측면에서의 복식명 연구 현황

IV. 복식사적 측면에서의 복식명 연구 현황

V. 복식명 연구의 과제

VI. 맺음말

## I. 머리말

국어학적으로 어휘의 측면에서 접근한 물명(物名) 연구 가운데 가장 미흡한 것 중 하나가 복식명(服飾名)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복식명을 다룬 그간의 연구는 양적으로도 극히 소량이고, 해당 문헌에 나타난 복식명을 나열하거나 일부 복식명에 대한 차자표기를 해독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따라서 복식명 전반이 학계에 소개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복식명의 개별적인 어휘사적 연구, 더욱이 다양한 복식명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기초 연구에도 그간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실정이다.

이에 비해 복식사에서는 ‘실물’인 복식에 대한 연구가 풍부한 만큼 ‘명칭’인 복식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복식사의 학문적 성격이 기본적으로 ‘실물 중심’의 연구여서 ‘명칭’도 실물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되었다. 명칭을 나열하거나 동일 지시물에 대한 이칭(異稱) 및 이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고, 복식명의 의미나 차자표기의 해독 등 복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해소해주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논거가 되거나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여 명확히 해주는 적극적인 역할도 찾기 어렵다.

‘복식명’에 대한 두 학문 분야의 연구가 이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두 분야가 서로 긴밀하게 참조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더불어 ‘실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복식사 연구가 풍부할수록 어휘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국어사 연구가 함께 진척되어 있어야 물명으로서의 복식명의 실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데, 복식사 연구에 비해 ‘명칭’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가 매우 미흡하여 상호 보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복식명에 대하여 어휘로서의 복식명 연구, 즉 국어사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실물로서의 복식명 연구, 즉 복식사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지닌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복식명 연구에 대한

---

\* 이 글을 집필하면서 복식사 쪽의 내용은 황문환·박부자·이명은·이은주(『『명미가 레시일기』 궁중복식문화사전 결과보고서 (I), (II)』, 2011, 2012)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이명은 선생님과 함께 대상 표제어 하나하나를 점검해가면서 의문점을 이야기했던 시간은 복식명에 관심을 갖게 된 필자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복식명’의 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

아래의 기술에서처럼 ‘복식(服飾)’이란 “옷과 장신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사람의 몸에 치장하는 모든 의류와 장식의 총칭”이다. 그러나 학술 용어로 쓰이는 ‘복식’은 이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마다 복식에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어 먼저 점검이 필요하다.

### (1) 복식(服飾)

가. 옷과 장신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나. 사람의 몸에 치장하는 모든 의류와 장식의 총칭. ‘복(服)’은 주로 몸통과 팔 다리를 감싸주는 의복을 말하는 것이고 ‘식(飾)’은 머리에 쓰는 모자나 관, 발에 신는 신이나 허리에 두르는 띠 등 여러 가지 장식을 말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에 제시한 사전적인 정의와 달리 복식사에서 다루어온 ‘복식’의 대상 범위는 단순히 ‘옷과 장신구’에 그치지 않는다. 石宙善(1971), 金東旭(1973), 柳喜卿(1982)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의복, 관모, 신, 장신구, 머리 모양, 재료 등 복식과 관련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다. 김은정·강순제(2004)에서 ‘복식 명칭’이라는 용어 아래 의복명, 장신구명, 직물명, 의복의 부분 명칭, 색채어 등이 모두 포함된 것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단적으로 드러난다.<sup>1)</sup> 그런데 복식사에서는 의복의 재료가 되는 직물명은 복식명의 하위 부류로 다루고 있으면서 노리개와 같은 장신구의 재료가 되는 보석명은 다루지 않고 있다. 재료라는 층위에서 본다면 직물명과 보석명은 함께 다루어야 마땅하다.

반면, 국어사 분야에서 그간 ‘복식’ 혹은 ‘복식명’과 관련하여 다루어온

1) 장인우, 「조선 중기 의생활 어휘에 대하여: 순천김씨묘 언문간찰 중심」, 『服飾』 제52권 4호(2002)에서는 ‘의생활 어휘’라는 용어를 쓰고, 그 안에 의복명, 직물명, 염료명, 의복 행위 관련 동사 등을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복식명(칭)’이라는 어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物名의 일종이지만 ‘의생활어휘’는 이보다 그 범위가 넓어서 의복 행위 관련 동사까지 포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상의 범위는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李基文(1965)에서는 근세 중국어 차용어를 다루면서 해당 어휘를 부류별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服飾”이다. 이 “服飾”에는 사전에서의 풀이 그대로 의복명과 장신구명만 포함시키고 있다. “服飾” 이외에 “珍寶, 布帛”을 따로 분류하여 보석명과 직물명을 제시하였다. 오창명(1997, 2010), 이양순(2002)도 기본적으로는 李基文(1965)과 같은 입장에 있으나 오창명(2010)은 “복식 어휘”를 “의복 관련 어휘”와 “복식 관련 어휘”로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服飾’이 바로 ‘服’과 ‘飾’, 즉 의복과 장신구이므로 이러한 하위분류에는 문제가 있다.<sup>2)</sup> 이양순(2002)에서는 “복식에 관한 어휘, 염색에 관한 어휘, 양잠에 관한 어휘, 옷감에 관한 어휘”를 다루면서 이들을 포괄하여 “복식 관련어”로 지칭하였다. 즉, ‘服飾’에는 의복과 장신구만 포함시키고 복식 주변의 어휘를 포괄하기 위해 ‘복식 관련어’라 지칭한 것이다. 한편 이성순(1988)과 이종덕·조정아(2013)에서는 ‘복식 어휘’ 혹은 ‘복식명’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안에 의복명, 장신구명, 재료명, 바느질 어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흡사 복식사 분야에서의 대상 범위와 같다.

이에 ‘복식명’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할 듯하다. 우선 ‘복식명’이란 해당 복식을 지시하는 명칭이므로 그 1차 대상 범위는 ‘복식’임에 틀림없다. 즉, 완성품으로서의 복식에 대한 명칭이다. 다만 그 완성품은 완성품 자체로 끝날 수 없고 그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분, 재료가 되는 물건, 그 재료의 구성방법,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 등이 존재하며, 이들과 관련된 각각의 명칭(=어휘)이 존재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복식명’은 사전적인 뜻 그대로 의복과 장신구에 대한 명칭으로 한정하되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분 명칭, 예를 들어 ‘저고리’는 완성품의 복식명인데 ‘저고리’를 구성하는 ‘깃, 소매, 고름’ 등의 부분 명칭과 완성품에 딸린 필수부속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외의 완성품의 재료가 되는 물건, 예를 들면 직물의 ‘명주, 명디’나 보석류의 ‘만호(滿瑚, 마노)’ 등과 ‘햇, 겹, 훗(〈훈〉)’과 같은 구성방법과 관련된 어휘, ‘누비, 깎기’와 같은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어휘, 재료나 완성품을 세는 단위명

2) ‘복식 어휘’의 하위부류로 나눈 ‘복식 관련 어휘’에 “머리에 쓰거나 치장으로 쓰는 것, 옷치장이나 장식으로 다는 것, 버선, 신발과 관계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장신구 관련 어휘’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 색채어, 관련 동사/형용사 등을 모두 ‘복식 관련 어휘’라는 용어로 포괄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가. 복식명: “옷과 장신구의 명칭”, 즉 완성품의 명칭. 완성품의 부분 혹은 필수부속품의 명칭 포함
- 나. 복식 관련 어휘: 복식명, 재료 관련 어휘, 바느질 관련 어휘, 복식 관련 단위명사, 색채어, 복식 관련 동사/형용사 등

이 글은 “조선시대 물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큰 주제 아래 기획된 것이므로 (2가)의 ‘복식명’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복식사에서 다루고 있는 ‘복식명’의 범위를 고려하여 복식명 이외의 복식 관련 어휘 중 ‘물명(物名)’에 속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다룰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물명’의 한 부분임을 드러내기 위해 (2가) ‘복식명’의 지시 범위를 확대하여 이 글의 대상이 되는 복식 관련 물명을 ‘복식명’이라 지칭하기로 한다.<sup>3)</sup>

### Ⅲ. 국어사적 측면에서의 복식명 연구 현황

#### 1. 복식명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의 성과

국어사에서 복식명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차용어에 대한 연구 속에서이다. 복식명 중에는 근세중국어 혹은 몽골어, 만주통구스 제어 등에서 차용된 어휘가 적지 않았다. 먼저 崔南善(1949: 167-171)에서 ‘마라기(冠), 더그레(袍子)’가 몽골어의 차용어임을 언급한 이후 李基文(1965)은 근세 중국어 차용어를, 李基文(1985)은 몽골어 차용어를, 李基文(1991b)은 만주통구스 제어 차용어를 살핀 것인데 그 가운데 복식명 일부가 언급되었다. 이들 논의에서 차용어로 제시한 어휘는 다음과 같다.

3) 복식 관련 물명(物名) 이외에 색채어, 복식 관련 동사/형용사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2나)에 제시한 대로 ‘복식 관련 어휘’로 지칭한다.

(3) 근세중국어에서 차용한 복식명(李基文, 1965: 199-202)

가. 服飾 (25개)

비가/비계[比甲], 둔즈/둔즈[頓子], 흉비[胸背], 괘즈[掛子], 휘항[護項], 당건[唐巾],  
던령[團領], 덩즈[頂子, 頂兒], 후시[護膝], 디미[玳瑁], 변스/변스[邊兒], 락즈[帶子],  
투구[頭盔], 망진/망진[網巾], 간투[匱頭], 수스[辮兒], 토인[條兒], 툼야/툼야[挑兒],  
심스[心兒], 휘[靴], 풍즈[棚子], 상투[上頭], 토슈[套袖], 푼즈[粉子], 셔피[斜皮]

나. 珍寶

보빅[寶貝], 버리[玻璃], 미라[蜜蠟], 파란[瑤瑯], 퉁[銅]

다. 布帛

로/노[羅], 비단[匹段], 즈우샤/주사[縐紗], 선단[閃段], 허즈[鬍子], 무즈[篋子], 무명  
[木棉], 다홍[大紅], 즈디[紫的], 야청[鴉青], 야투로/야토록/야토록[鴨頭綠]

(4) 몽골어에서 차용한 복식명(李基文, 1985)

털릭[帖裏], 몽골문어 terlig, 칼묵어 terlig, 더그레[袍子]

(5) 만주투구스 제어에서 차용한 복식명(李基文, 1991a)<sup>4)</sup>

널퀴만주어 nereku], 쿠리매만주어 kurumel], 마흐래/마흐리[여진어 mahiral]  
cf. 감토: 만주어 kamtu(帽), 줌치: 만주어 jummangi(작은 주머니) 참조.

(3나)의 ‘珍寶’류로 분류된 중국어 차용어와 관련해서는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된 것이 없었다. 최근 김춘월(2013: 29)에서 낙선재본 『홍무몽』에 나타난 중국어 차용어를 다루면서 “파란은 ‘瑤瑯’의 중국음을 기원으로 하지만 중국어 ‘瑤瑯’ 또한 페르시아어인 ‘fārang’에서 차용된 말이므로(劉正埏, 1984: 96) 이는 중국을 통하여 차용된 불교 어휘들처럼 간접적인 차용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언급이 있을 뿐이다. (4)의 ‘털릭’과 관련해서는 ‘털릭’이 몽골어 차용어라는 사실 이외에 ‘帖帖裏리’ 또한 몽골어를 차용한 중국어 표기임을 명확히 하였다. 즉, 몽골어의 ‘terlig(숨 외투)’이 중국어와 한국어에 차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정곡을 꿰뚫은 것인데 이강로(1983: 99, 113-115)에서 ‘帖裏’를 한자어라고 하는 등 이후의 논의에서 제대로 참조되지 못하였다. (5)에 제시한 ‘감토[帽]’는 小倉進平(1934), 崔南善(1949) 등에서 만주어에서 온 것으로 보았으나 李基文(1991a: 210)은 정약용(丁若鏞)이 『아언각비(雅言彙非)』에서 기술한 것처럼 중국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줌치’는 만주어 ‘jummangi(작은 주머니)’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차용관계를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20세기 초 북방 방언 중에 만주어 차용어를 보이는 예도 제시하였는데 ‘사부(평북 자성 방언)만주어 sabu, 여진관역어 A sabul, 오로시(함북 방언)만주어 ološif’ 등이다.

金完鎮(1970: 12)에서는 (3)에 제시한 것 이외에 ‘뵈[布]’도 근세중국어 ‘布[\*pwo/puo-/pu]’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았다. 南豐鉉(1985: 12)에서는 ‘털릭’, ‘쿠리매’ 이외에도 16세기 이후 18세기 문헌에 걸쳐 나타나는 중국어 차용어를 제시하였으나 李基文(1965)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강길운(1991)은 현대에 고유어로 알고 있는 어휘 가운데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본래 차용어로 볼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각 어휘마다 해설을 붙인 것인데, 여기에서 복식명 일부를 다루었다. 그 가운데 ‘바지, 볼기, 저고리, 철릭’을 모두 차용어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적삼’의 ‘적’ 또한 “홀”의 의미를 갖는 터키어 ‘tek’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았다. ‘적삼’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설은 현재까지도 ‘적삼’의 ‘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것<sup>5)</sup>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었으나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고증이 필요하다. 리득춘(1992)은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와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 근거하여 중국어 차용어를 고찰해본 것으로 (3가)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중국어에서 차용된 복식명 몇몇이 더 제시되었다.

이후 한동안 차용어에 대한 연구는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최근 蕭悅寧(2012)에서 『역어유해(譯語類解)』와 『방언유석(方言類釋)』에 나타난 근세중국어 차용어를 변별하면서 다시 거론되었다. 蕭悅寧(2012)에서는 李基文(1965)에서 중국어 차용어로 거론하였던 ‘寶반貝비, 團圓領링, 頂덩子즈, 鴉아靑칭’은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차용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차용어 속에서 복식명을 다루어온 연구는 복식명 자체에 초점이 있었다기보다 차용어를 살피는 가운데 복식명이 거론된 것일 뿐이다. 간혹 차용어의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언어학적으로 차용관계를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들이다. 그러나 차용어 복식명의 경우 실물이 유입되면서 어휘가 함께 들어온 것이므로 차용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어 실물의

5) 南豐鉉, 「15世紀 諺解 文獻에 나타난 正音 表記의 中國系 借用 語辭 考察」, 『국어국문학』 39-40호(1968)에서는 ‘적삼’의 ‘삼’은 원문의 ‘衫’으로 보아 그 어원을 알 수 있으나 ‘적’의 어원은 미상이라고 하였다. 이후 이양순, 「『順天金氏墓簡札』에 나타나는 服飾 關聯語 研究」, 『泮矯語文研究』 14호(2002)에서 『동한역어(東韓譯語)』에는 ‘赤衫’으로, 『사례편람(四禮便覽)』(1884)에는 ‘的衫’으로 표기된 것은 ‘적’의 어원이 분명치 않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새양 강[薑]’이 ‘생강’이 된 것처럼 ‘저고리 삼[衫]’이 ‘적삼’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유입 시기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털릭’도 그런 예이다. 복식사에서든 문헌의 기록을 통해 ‘털릭’이 원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이은주, 1988), 이와 같은 실물의 유입 시기는 ‘털릭’이 몽골어로 부터의 차용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 박부자(2013)에서는 ‘누비’가 ‘衲衣’에서 차용된 것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고증하면서 ‘衲衣’가 5-6세기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복식사의 연구가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복식명처럼 실물과 관련된 차용어는 언어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실물의 유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논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차용어 속에서 복식명을 언급해왔던 초기의 연구 이후 복식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시 두 측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복식명을 대상으로 한 차자표기의 해독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 자료에 나타난 복식명에 대한 검토이다.

전자에 대한 연구로는 이강로(1983), 오창명(1997, 2010) 등이 있다. 먼저 이강로(1983)는 『상방정례(尙方定例)』 권1의 진상 의류에서 뽑은 복식명 11개를 차자어(借字語)와 한자어, 궁중어로 나누어 각 어휘를 분석한 것이다. 차자표기 해독의 고증 절차를 밝히고 있고 특히 한자어 복식명을 다루고 있는 점은 매우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한자어인지 차자표기인지를 판단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李基文(1964, 1965: 197 재인용) 이래로 차용어로 보아왔던 ‘털릭’과 관련된 ‘帖裏’도 한자어로 파악한 것이나 ‘褰肚’를 한자어로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오창명(2010: 11-12)에서는 ‘褰肚’를 ‘고두’의 차자표기(借字表記)로 파악한 바 있다.

이후 오창명(1997, 2010)은 조선 후기의 각종 의궤에 나타나는 복식명 중 몇몇을 대상으로 차자표기를 해독하는 데 주력하였다. 복식명을 대상으로 차자표기 해독의 관점에서 연구된 것이다 보니 차용어 및 고유어가 주 대상이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각 복식명의 이표기를 제시해주고 있어서 개별 어휘의 어휘사적 연구에 참고가 될 만하다.

天益/天翼[털릭/철릭], 帖裏/帖裡/貼裡/疊裏/綴翼/綴翼[털릭/철릭]  
 汝火[너블 > 너울], 羅火[나블 > 너울], 羅兀[나울 > 너울] (오창명, 1997, 2010)

그런데 오창명(1997)에서 차용어 및 고유어의 차자표기로 제시한 것



가운데에는 한자어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 (6) 가. 次[ㄷ음 > ㄱ] : ‘次’는 ‘ㄷ음 > ㄱ’의 혼독자 표기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재료를 뜻한다. ‘坎桴’은 모두 음가자. (오창명, 1997: 51)  
나. 아청단 신츠 <《뎡미가례시일기 73a》/ 雅靑緞 鞋次 <《가례시절차》><sup>6)</sup>  
다. 남뉘 치마츠 <《뎡미가례시일기 73b》/ 藍紬 裳次 <《가례시절차》>
- (7) 가. 內衣[솨웃 > 속웃], 裏衣/裡衣[솨웃 > 속웃], 單裏衣/單裡衣[훨솨웃 > 훨속웃], 袂裏衣/袂裡衣[겹속웃] : 內衣, 裏衣/裡衣는 ‘솨웃<능업경언해 (1461)>’의 차자표기이고…… (오창명, 2010: 10)  
나. 빅셔양목 니의 일 <《뎡미가례시일기 17a》/ 白西洋木裏衣 - <《가례시절차》>

(6가)에서 ‘次’는 고유어 ‘ㄷ음’의 차자표기라고 하였으나 19세기 궁중발기에서는 (6나), (6다)에서처럼 ‘次’를 ‘츠’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어로 쓰였다. (7가)의 ‘裏衣/裡衣’는 ‘솨웃’의 차자표기라고 하였으나 이 또한 (7나)의 19세기 궁중발기에서는 ‘裏衣’를 ‘니’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어로 쓰였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강로(1983)에서 ‘裏衣’를 한자어로 파악한 것은 타견이다. 그런데 오창명(1997)에서 이들을 고유어의 차자표기로 판단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외의 다른 어휘에 대해서도 차자표기 해독의 절차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복식명에 대해 차자표기 해독의 관점에서 다룬 그간의 연구는 대부분 몇몇 어휘를 취사선택하거나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어휘의 변화 양상 등 어휘사적인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언간 등 한글 자료를 대상으로 한 이성순(1988), 이양순(2002), 이종덕·조정아(2013), 조정아(2014)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성순(1988)은 현대국어의 복식명 중 고유어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형성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대상 어휘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선별한 것이지만 국어사 자료를 이용하여 그 형성과정을 살피고 있다. 또 국어학적인 연구에서는 드물게 실물의 그림을 함께 수록하고 부분 명칭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조선시대 물명 연구에도 참고가 된다. 그러나 어휘 분석에서는 문제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저고리’를 ‘적-+-오리’로

6) 이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한문본 『헌종비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를 말한다.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본 『뎡미가례시일기』(1책본)의 한문본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이를 약칭하여 ‘가례시절차’라 하기로 한다.

분석하고 이때 ‘적’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이나 ‘바지’를 ‘받--+이’로 분석한 것 등 분석의 근거나 타당성에 의심되는 바가 많다. 또 ‘견마기’를 한자어 ‘견(絹)’과 ‘막--+이’로 분석한 것은 복식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최근 인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인간에 나타난 물명, 그 가운데 복식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양순(2002)은 순천김씨묘출토언간, 이종덕·조정아(2013), 조정아(2014)는 의성김씨 학봉 종가 언간에 나타난 복식명을 살펴본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새로운 복식명이 소개되었으며 동일 지시물에 대한 한글 이표기가 여럿 확인되기도 하였다.<sup>7)</sup>

복식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어휘사 연구는 박부자(2013)가 유일한 듯하다. 박부자(2013)는 복식명 연구에서 ‘명칭’과 ‘실물’의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누비’ 관련 어휘를 대상으로 국어사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누비’가 ‘衲衣’의 차용어라는 기존의 논의를 고증하고 ‘누비’가 본래 “옷”을 포함한 개념에서 바느질 방법만 지시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즌누비, 드믄누비’ 등 ‘누비’ 관련 어휘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 외에 어휘사적 연구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우나 단편적으로 어원에 관해 언급한 것들이 있다. ‘적삼에 대해 ‘새양 강(薑)이 ‘생강’이 된 것처럼 ‘저고리 삼(衫)’이 ‘적삼’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양순(2002)의 언급이 그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간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진행된 복식명 연구는 복식명 전반이 학계에 소개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복식명의 개별적인 어휘사적 연구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황문환 외(2011, 『정미가례시일기 주해』)에서 궁중발기를 모아 엮은 『정미가례시일기』에 나타난 복식명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빠짐없이 주석을 베풀고 있어 궁중 발기(件記)에 나타난 복식명의 1차 자료가 제공된 셈이다. 연구 목적이 본래 그렇기도 했지만, 역시 1차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어 복식명에 대한 주석이 사전적 정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많고, 어휘사적인 내용은 거의 다루지 못했다.

이후 황문환 외(2011)가 밑거름이 되어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연구과

---

7) 언간 자료를 대상으로 복식명을 언급한 것으로는 박부자, 「언간 자료의 어휘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국어사연구』 18호(2014), 45-78쪽도 거론할 수 있다. 다만 위 논문은 언간 자료의 어휘사적 가치에 대해 논의한 것인데, 언간을 대상으로 해서도 물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복식명을 언급하였다.

제 “『덩미가례시일기』 궁중 복식문화 사전”(연구책임자 황문환, 공동연구원 이은주·이명은·박부자)이 2년(2011-2012)에 걸쳐 진행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국어사 전공자와 복식사 전공자가 학제 간으로 진행한 것으로, 『덩미가례시일기』에 나타난 복식명, 복식 관련 단위명사, 색채어 등 관련 어휘 300여 개를 대상으로 각각의 명칭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와 복식사적 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의 결과물이 출간된다면 복식명을 대상으로 한 국어사적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유어뿐 아니라 한자어도 모두 대상으로 하였고 한자어의 경우 결합 구성을 분석하고 한자의 의미를 해설하여 실물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징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자어 복식명의 율곽도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진행 중인 결과물의 샘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덩미가례시일기』 궁중 복식문화 사전”의 구조 및 예시

표제어[한자표기]: 표제어는 한글본의 표기, 한자 표기는 대응되는 한문본의 표기를 제시

[현대국어어형] [한줄 정의]

[어휘설명] 어형변화를 제시

[한글표제어 설명] 한글표제어의 형태분석, 이표기, 변화 등을 설명

[한자표기 설명] 차자표기에 대한 해독, 한자어의 구성과 의미를 설명

[복식설명]

[용도/형태] 복식의 용도와 형태를 기술

[덩미가례시일기] 『덩미가례시일기』에 쓰인 복식에 대해 기술

[착용법]

[유물사진]

[참고문헌]

**견마기 [肩莫只]**

[결마기] [조선시대 부녀자들의 의례용 저고리]

**[어휘설명] 것막이>견마기**

**[견마기]** ‘결臑, 櫛+막防+-이’가 결합된 것으로, ‘결’, 즉 겨드랑이가 막힌 저고리를 의미한다. 제1음절의 말음 ‘ㅌ’이 자음 앞에서 ‘ㄷ’으로 된 이후 제2절의 초성 ‘ㅁ’의 영향으로 ‘ㄷ’이 비음인 ‘ㄴ’으로 변하여 ‘견마기’로 나타난 것이다. ‘것막이’로 기록된 예도 있다. (광월스 것막이 <<춘향전 경관본 17:1b>>)

**[肩莫只]** 한문본의 ‘肩莫只’는 ‘견마기’를 각각 음차표기한 것이다. ‘肩尔只/臑尔只/

傍尔/只/肩莫伊'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腋, 傍'은 '결(→것→건)'의 훈독표기이다.  
(결 곁 방 《석봉천지문(1583) 19b》, 곁 傍 《국한회어(1895) 23》)

### [복식설명]

**【용도/형태】** 조선시대 부녀자의 외출복 또는 연회복(宴會服). 소례복(小禮服)인 당의(唐衣·唐串衣·唐古衣)보다는 아래급의 옷이다. 결마기는 연두색이나 초록색, 또는 자주색으로 만들었는데 형태는 저고리와 같지만 길이가 저고리보다 길고 품도 넓은 것이 특징이다. 저고리의 크기가 시대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결마기의 크기도 변화하였는데 조선 중기까지는 품도 넓고 길이도 60~70cm 정도의 긴 저고리 형태였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저고리가 짧아짐에 따라 결마기의 길이와 품도 작아졌다. 소매에는 당의처럼 흰 거드지(=끝동)를 달았으며 깃과 겨드랑이에는 자주색 회장을 장식하였다. 또한 금박 장식을 더하기도 하였다.

**【덩미가례시일기】** 경민김씨가 야담상을 받을 때[進夜啖床時]는 사양의(사양머리)를 하고 대란치마[大欄裳]에 금수복자(金壽福字) 견마기를 입었다. 또한 殿宮朝飯床[東朝] 初日夜에는 남색 대란치마[藍大欄裳]에 자적금수복자 견마기를, 둘째 날, 셋째 날 밤에는 다홍 대란치마에 초록 금수복자 견마기를 착용하였다. 이때 '가례시 의복 기소'에 보면 첫째날 밤에 입는 자적 금수복자 견마기는 송화색 장원주 저고리와 분홍 화시주 저고리를 한 세트로 입었다. 반면 둘째 날, 셋째 날 밤에 입는 초록 금수복자 견마기는 역시 송화색 꽃무늬 통해주 저고리와 보라색 장원주 저고리를 한 세트로 입었다.

삼간택 재간택 처녀에게는 옷감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때 견마기의 옷감으로는 초록색 구름무늬가 있는 비단이 내려졌다. 침실 내인에게 내려지는 옷감 가운데 견마기 옷감은 초록 속초가 내려졌는데 회장을 갖추도록 하였다.

**【착용법】** 결마기는 저고리 세 벌을 일작(一作)으로 착용하는 경우에 가장 곁에 입는다. 안에는 분홍이나 보라색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송화색 저고리를 입는다. 나이가 많은 부인은 송화색 저고리 대신에 옥색 저고리를 입기도 한다. 그 저고리 위에 마지막으로 결마기를 덧입는다.



사진1-16세기의 결마기(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사진2-17세기의 결마기(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사진3-19세기의 결마기: 덕온공주 부금저고리(중요민속자료 제211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참고문헌》

김영숙(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사.

박성실(1994), 「回裝赤古里와 肩尔只 再考」, 『美術資料』 54, 208-229쪽.

박성실·조효숙·이은주(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학교출판부.

그러나 역시 짐작되는 한계점이 있다. 먼저 “『덩미가례시일기』 궁중 복식문화 사전”은 복식사와 국어사가 학제 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복식명을 연구하는 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은 복식사에 있는 것이어서 어휘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이라는 제약 때문에 어휘사와 관련하여 보다 심화된 어휘사적 내용을 다루기가 어렵고, 자료도 『덩미가례시일기』에 한정되어 있어 복식명 전반을 망라하지 못했다.

한편 여찬영 외(2012)도 의례에 나타난 복식명을 대상으로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한 것 중 하나이다. 여찬영 외(2012)는 규장각과 장서각에 보존되어 있는 조선시대 왕실 전례 관련 의례를 대상으로 용어를 선정하여 그 뜻을 풀이하고 용례와 색인을 덧붙인 것인데 여기에 복식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국어사적으로는 해당 복식명이 차자표기인지, 일반 한자어인지에 대한 정보와 차자표기를 해독하여 병기한 것을 참조할 수 있을 뿐이고, 내용은 모두 복식사 측면에서 기술되었다. 즉, 국어학적인 해설은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학제 간 연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류와 해독에 적지 않은 오류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오창명(1997, 2010)에서 차자표기로 파악한 ‘多繪’를 [다회로 읽고는 ‘일반한자용어’로 분류했고, ‘首紗只’는 ‘차자표기용어’로 분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로 읽었다. ‘首紗只’는 오창명(2010)에서 ‘마리삭/마리사기’의 차자표기로 보았고 궁중발기에도 ‘마리사기’로 나온다. ‘短衫兒’를 [단삼아로 해독하고 ‘차자표기용어’로 분류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복식명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

## 2. 복식명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의 한계

복식명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는 ‘실물’ 연구를 충분히 참조하지 못함으로써 혹은 실물과의 관련성을 도외시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먼저 국어사 연구에서 복식사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참조하지 못하여 명칭에 해당하는 실물을 잘못 파악한 경우가 있다.

### (9) 串衣

가. 串衣[꽃의]: 어떤 옷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현대국어 ‘고쟁이’에 대응하는 옛말 ‘꽃의[고지]의 표기가 아닌가 한다. (오창명, 2010: 16)

나. 串衣[천의]: 저고리형태입이 확실하며 赤古里, 脛只보다도 격이 높은 옷으로 대우하고 있다. (朴聖實, 1992)

다. 串衣[고의]: 조선시대의 저고리류…… 裳과 짝을 이루어 착용하였던 의복…… 대비, 왕비, 황태자비, 세자빈, 세손빈, 원자빈, 현빈으로 나타나 최고 신분의 여성에게 한하는 의복…… (황유선, 1999: 39-40)

라. 古衣=串衣[고의]: 자적색 것이 달린 여자 상의…… 덧저고리류로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찬영 외, 2012: 59)

오창명(2010: 16)에서는 ‘串衣[꽃의]’를 하의류 속옷인 현대국어의 ‘고쟁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9나)-(9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식사에서는 상의류인 저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sup>8)</sup> 특히 ‘고쟁이’는 속옷류인데 복식사에서는 ‘串衣’를

8) 황유선, 「조선시대 저고리류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을 참조한다면 高福男, 「韓國服飾用語의 變遷史的 研究: 實物服飾用語를 中心으로」, 『韓國民俗學』 14권 1호(1981), 1-40쪽에서는 쓰개치마에 해당하는 ‘치네’로 보기도 했지만

겉옷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식사의 연구 성과를 참조한다면 적어도 ‘串衣’를 ‘고쟁이’와 연결짓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sup>9)</sup> 국어사적으로는 ‘串衣’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 복식사에서 ‘관의, 꽃의, 천의’ 등으로 읽는 등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최근 왕실발기 자료에 ‘고의’라는 한글표기를 근거로 ‘고의’로 읽게 되었다. 이러한 독법이 국어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다르게 읽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

복식사의 연구 성과를 고려할 때 명칭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눈에 띈다.

- (10) 가. 裏衣: 한자어로서 읽기는 ‘의’의 “속옷”에 대한 통칭이다. 남녀의 구별없이 통용된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궁중에서 ‘의’로 읽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속옷”으로 흔히 일컫는다. (이강로, 1983: 31)

cf. 襦串衣貳次草綠吐紬貳疋 / 襦串衣壹次紫的吐紬壹疋 / 襦赤尓壹次紫的吐紬壹疋 / [...] / 衫兒壹次 白紬紬壹疋 / 袂裏衣壹次白吐紬壹疋 / [...] / 黑熊皮溫鞋壹部 《상방정례 대왕대비전 탄일진상》

- 나. 內衣[속옷 > 속옷], 裏衣/裡衣[속옷 > 속옷], 單裏衣/單裡衣[후속옷 > 후속옷], 袂裏衣/袂裡衣[겉속옷] : 內衣, 裏衣/裡衣는 ‘속옷’《능엄경언해(1461)》의 차자표기이고 [...] ‘속옷 > 속옷’은 현대어 ‘속곳’, 꽃 겉옷의 안쪽에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옷을 이른다. 赤衫이나 汗衫 안에 입는 것이다.<sup>10)</sup> (오창명, 2010:10)

- (11) 가. 빅셔양목 니의 일 《명미가례시일기 17a》 / 白西洋木裏衣- 《가례시절차》  
나. 양목 속것 오 《계사(1893) 십월 기례시불기》, 빅덩주 단속것 삼 《계사(1893) 십월 기례시불기》

- (12) 가. 속옷 裏衣 《국한회어(1895) 184》, 속옷 裡衣 《한불사전(1880) 427》  
나. 속것 裡衣 《한불사전(1880) 427》, 單袴 속것 《광재물보(19세기) 衣服:3a》

‘니의/裏衣’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로는 이강로(1983)와 오창명(2010)이 전부이다. 이강로(1983)에서는 『상방정례』에 나타난 ‘裏衣’를 한자어로 보고 “속옷”의 통칭이라고 하였다. 반면 오창명(2010)에서는 “현대어

현재는 왕실 여성의 상의류 옷으로 당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9) 뿐만 아니라 오창명, 「儀軌에 나타나는 고유 服飾 어휘 -17세기 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3호(2010), 5-33쪽에서 ‘串衣’를 옷옷류로 분류하고 있으면서 하의류 속옷인 ‘고쟁이’로 추측하고 있어서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10) 赤衫이나 汗衫 “안에” 입는 것이라고 하여 마치 저고리 안에 입는 것처럼 기술했지만 이는 赤衫이나 汗衫에 입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속곳’, 곧 겹옷의 안쪽에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옷을 이른다. 적삼이나 한삼 안에 입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속곳’이라는 특정 속옷으로 파악한 것인데, ‘속옷’과 ‘속곳’의 연결에 문제가 있다. 현대국어의 ‘속곳’은 (11나), (12나)의 ‘속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복식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방정례』에 기록된 ‘裏衣’는 속옷의 통칭 이거나 안에 받쳐 입는 옷으로 보지만<sup>11)</sup>, 19세기 궁중발기에 기록된 ‘裏衣’는 여성의 하의류 속옷 중 바지 혹은 치마 형태로 되어 있는 속옷을 가리키는 특정 명칭으로 이해해왔다.<sup>12)</sup> 이러한 논의를 참조하면 ‘裏衣’를 속옷의 통칭으로 본 이강로(1983)와 ‘裏衣’를 ‘속곳’으로 본 오창명(2010)이 모두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창명(2010)은 17세기의 의례를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복식사에서 ‘裏衣’를 하의류 속옷 중 하나의 특정 명칭으로 본 것은 19세기 궁중발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시기상의 차이를 보인다. 복식사에서 논의하고 있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17세기의 의례에 기록된 ‘裏衣’를 ‘속곳’으로 보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기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국어사적으로는 ‘니의/裏衣’가 속옷을 통칭하던 것에서 어떻게 하의류 속옷 중 하나를 지칭하는 특정 복식의 명칭이 된 것인지 그 의미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불어 ‘底衣, 襯衣, 內衣’와의 관계, 또 ‘니의/裏衣’와 ‘속것 > 속곳’의 관계를 해명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상에서 복식명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에서 복식사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참조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복식명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에서 보다 시급한 것은 한자어 복식명에 대한 연구이다. 복식명 가운데에는 차용어와 고유어가 상당수

11)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가 대표적이다. 그 외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으나 이명은 선생님께 자문을 구한 결과 『尙方定例』에 나타난 ‘裏衣’는 상하를 구분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몸에 직접 닿는 속옷을 지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간에 받쳐 입는 ‘중단’과 같은 옷을 지시하기도 한다고 한다.

12)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教文社, 1982); 이명은, 「『궁중별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장서가 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박성실·조효숙·이은주,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133쪽에서는 바지 형태의 여성 속옷인 ‘속곳’으로 보았고,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와 국립고궁박물관 편, 「조선 왕실 왕비와 후궁의 생활」, 2013년도 국립고궁박물관 학술연구용역 보고서(2013b)에서는 치마 형태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존재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자어 복식명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물론 이와 같이 된 데에는 한문으로 작성된 1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한자어인지 차차표기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식사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참조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복식사에서 하나의 실물에 대한 명칭의 여러 이표기 혹은 이칭이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참조하여 한자어 복식명의 본래 표기가 어떤 것인지부터 찾아야 한다.

- (13) 가. 녕초 《덩미가례시일기 71a》 / 英綃 ‘가례시절차’  
 나. 永綃 三匹 《실록 정조 9년(1785) 2월 14일 기사》  
 다. 藍領綃緞長衣 《실록 정조 24년(1800) 7월 3일 기사》  
 라. 鵝青樸紋寧綃緞快子 《실록 순조 34년(1834) 11월 17일 기사》
- (14) 가. 가례일 입결시 【마라마리 노의 봉뒷】 《덩미가례시일기 2a》  
 나. 嘉禮日入闕時 【마라마리 鶯衣 風帶】 《가례시절차》  
 다. 露衣 長衫 花紋紅段 二匹 《실록 선조 36년(1603) 3월》  
 金圓紋露衣, 紫的羅露衣帶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1638)》

(13)에서처럼 한자어와 관련된 여러 이표기 중에서 단초를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3가)의 ‘녕초’는 견직물 중 하나로 한문본에서는 ‘英綃’로 기록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인 표기가 궁중발기의 ‘英綃’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영초(英綃)’로 표제어가 올라 있다. 그러나 국어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녕초’가 ‘英綃’의 표기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英’의 한자음은 본래 ‘영’이기 때문이다(英 곱부리 영 < 훈몽자회(1527) 하2b)). 복식사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 ‘녕초/英綃’는 (13나)~(13라)의 ‘寧綃, 領綃, 永綃’ 등으로도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13다) 혹은 (13라)에 제시한 실록의 기록 ‘領綃, 寧綃’가 한글본 ‘녕초’의 본래 한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녕초’의 원산지가 중국영파(寧波)였다는 복식사의 연구 성과(이은진, 2004: 117)는 ‘녕초’가 바로 ‘寧綃’의 한자음을 표기한 것임을 확정지을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寧綃’가 어떻게 ‘領綃, 永綃’로도 적힐 수 있었는지 이것이 국어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설명해 낸다면 한자어 복식명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의 소임은 다하는 셈이 될 것이다.

물론 (14)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14)에 제시한 ‘노의’

는 4품 이상의 정처(正妻)들만 입는 예복 중 하나이다. 복식사에서는 대체로 실록 혹은 의궤에 기록된 (14다)의 ‘露衣’를 대표형으로 보고 있는 듯하지만<sup>13)</sup>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14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세기 궁중발기에서는 ‘鷲衣’로 적기도 하였다. ‘露衣’이든 ‘鷲衣’이든 ‘露’ 혹은 ‘鷲’ 어느 쪽도 해당 복식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어느 쪽의 기록이 본래의 복식명인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논의된 바 없다.

조선 후기에는 한자어 물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한자를 일관되게 적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 자료 안에서도 발음이 동일한 다른 한자를 쓰기도 한다. 이는 복식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자어 복식명에 대한 연구는 여러 표기로 나타나는 한자어 복식명 가운데 어느 것이 정확한 표기인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자어의 구조, 이표기 간의 관계, 한자의 의미와 해당 복식의 관계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IV. 복식사적 측면에서의 복식명 연구 현황

### 1. 복식명에 대한 복식사적 연구

복식사 연구에도 명칭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어서 복식명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던 듯하다. 각 명칭이 어떤 실물의 명칭인지와 같은 단순한 기술에서부터 명칭의 의미와 실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한 논의, 동일한 복식에 대한 이칭과 이표기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논의까지 그 깊이와 성격이 실로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朴聖實(1994)에서는 회장저고리와 견마기 명칭의 유래에 대해, 황유선(1999)에서는 다양한 저고리류의 명칭에 대해, 김진구(1998, 1999a, b, 2001b, c)는 어휘집에 기록된 복식명 중 ‘보선과 칭’, ‘잇소매와 함소매’, ‘胡袖’ 등 조선시대의 복식명 가운데 불분명

13) 한국복식학회(<http://www.ksc.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복식사전』(<http://dic-costumekorea.org>)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복식사전』에는 표제어 ‘노의’의 한자어를 ‘露衣’로 제시하고 있다.

한 명칭들에 주목하였다. 또 한국의 복식명과 몽골, 만주의 복식명을 비교한 김진구(1993a, b)에서는 몽골어나 만주어에서 유래된 명칭을 소개하고 있어 어휘사의 측면에서 복식 관련 차용어를 연구할 때 참고할 만하다.

한편, 복식사에서 복식명을 연구할 때 노걸대, 박통사류 문헌이나 한자 학습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진구(1996)와 서정원(2003)은 『노걸대』류 문헌에 나타난 복식명을, 김진구(2000)는 『박통사』류 문헌에 나타난 복식명을 발췌하고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김은정(2005)은 한자 학습서에 나타난 복식명을 대상으로 명칭과 실물의 관계를 조명한 것이다.

이 가운데 명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의 의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은주(1988)는 ‘털릭’과 관련된 여러 이표기를 망라하여 분류하고 그들의 관계를 밝힌 것이다. 국어학에서는 ‘털릭’이 몽골어 차용어라는 사실만 반복하여 언급한 데 그치고 있는 반면, ‘털릭’ 관련 표기를 ‘첩리(帖裏, 터리) 계통, ‘천익(天益, 턴릭) 계통, ‘철릭(綴翼, 털릭) 계통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차자표기 문제와 상호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국어사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황유선(1999)에서는 저고리의 명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일례로 ‘串衣’를 그간 복식사에서 ‘천의, 꺾의’ 등으로 읽어왔던 것이나 현재 ‘고의’로 읽는 견해를 검토하고, ‘褰肚’와 관련된 여러 표기들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등 명칭에 관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김지연(2008)과 임수빈·김성남(2013) 등에서는 한자 표기 ‘巨擔伊, 擧頭美, 擧頭尾’에서 머리 모양 중 하나인 ‘거두미’의 모양과 관련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통시적으로 명칭의 변화를 살핀 연구도 있는데 김은정(2005)이 바로 그러하다. 김은정(2005)은 『훈몽자회』, 『신증유합』, 『아학편』, 『정몽유어』 등과 같은 한자 학습서와 『역어유해』, 『동문유해』, 『몽어유해』, 『왜어유해』, 『방언유석』 등과 같은 외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복식명을 대상으로 의미나 표기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김은정·강순제(2007)는 조선시대 어휘집에 나타난 동의어 복식명에 대해, 김은정·조우현·강순제(2009)는 외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외래어 복식명에 대해, 김은정(2010)은 개화기에서 광복 이전까지 신문 잡지에 기록된 복식명에 대해 지속적

으로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복식사적 측면에서 접근한 ‘복식명’ 연구는 실제로 복식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복식사 연구에서도 복식명에 대해 고민한 바가 적지 않지만, 명칭을 나열하거나 동일 지시물에 대한 이칭(異稱) 및 이표기를 확인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실물’ 중심의 연구인 복식사 연구에서는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논거가 되거나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여 명확히 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은 없었던 것이다.

## 2. 복식명에 대한 복식사적 연구의 한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한 복식에 대한 여러 이칭, 이표기를 이해하고자 복식사 분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복식을 논할 때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칭이 중요한데 특히 동일한 복식에 대해 여러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이은주, 1988: 366) 복식사에서의 이런 고민은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복식사의 연구 성과를 전제로 명칭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거나 과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머리 모양 중 하나인 ‘거두미’가 그중 하나이다.

### (15) ‘거두미’ 관련 예

- 가. 而首飾則未得翟冠，而以舉頭美行禮矣(그러나 首飾은 翟冠을 구하지 못하여 舉頭美로 예를 행할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인조 3년(1625) 8월 11일》  
首飾二所入 鬘髮四十丹 一曰大首 一曰舉頭美 《책례도감의궤(1645)》 (임수빈·김성남, 2013에서 재인용)  
今之所謂舉頭美者 鬘髮瓊珈 《瓶窩集(1774)》
- 나. 舉頭尾 《책례도감의궤(1661)》 (임수빈·김성남 2013에서 재인용)  
다. 一. 於由味、巨頭味，係是命婦常時所着，人家讎婚所用，勿爲禁斷 《왕조실록 정조 12년(1788) 10월 3일 기사》  
라. 一 어유미 거두미는 명부의 상시 소착이오 인가의 연혼 소용이오니 금단치 마올져 《가채신금사목(1788) 9ㄴ》  
마. 其假髻則 有名於炎伊者 有名巨擔伊者 皆束髮爲之推重口頭…… (가계에는 어염이와 거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두 머리털을 묶어 만들며 높다랗게 겹으로 쌓아 올리며……) 《居家雜服考(1841)》

바. 於余未와[婚衣之名] 去豆微와[婚衣名]…… 《朝鮮女俗考(1927)<sup>14</sup>》, 婚禮衣服》

(16) ‘큰마리’ 관련 예

가. 관네일 […] 삼가의 【큰마리 원삼 봉딤】 《당미가례시일기 2b》 / 冠禮日  
[…] 三加 【大頭里 元衫】 鳳帶 《가례시절차》

나. 십일월 이십륙일 관네시 / 큰마리 칠보 《당미가례시일기 30b》 / 十一月  
二十六日[隔]冠禮時 / 大末里七寶 《가례시절차》

(15)는 복식사에서 ‘거두미’와 관련하여 언급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복식사에서는 (15)에 제시한 ‘舉頭美, 舉頭尾, 거두미/巨頭味, 巨擔伊, 去豆微’와 (16)에 제시한 ‘큰마리’를 동일한 지시물에 대한 이칭(혹은 이표기)으로 보고 있다.<sup>15)</sup> 이에 따라 ‘거두미’와 관련된 여러 표기를 ‘큰마리(>큰머리)’와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김지연(2008: 87)에서는 ‘巨擔伊’가 “비록 假借를 하더라도 머리에 가발을 높게 쌓아서 엮고 있는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자를 차용한 것”으로 보았다. 또 임수빈·김성남(2013: 133)에서는 ‘거두미’를 지칭하는 용어 ‘巨頭, 舉頭, 大頭’에는 “크다”는 의미가 고루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舉頭’를 “머리 위로 들러 올라간 형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舉頭美, 舉頭尾’의 ‘尾’는 “꼬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美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면서 “머리 위로 추켜올려져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는 머리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舉’에 “크다”라는 의미가, ‘尾’에는 ‘美’와 같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이와 같은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거두미’와 관련된 한자 표기를 모두 한자어로 인식하고 명칭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던 듯하지만 ‘舉’와 ‘美, 尾’, 특히 ‘巨擔伊, 去豆微’는 ‘큰마리’와 관련하여 한자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듯하다.

복식사에서 ‘거두미’의 명칭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과해석하는 경향이

14) 李能和가 지은 우리나라 女俗에 관한 책으로 1927년 東洋書院에서 출간되었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김지연, 『朝鮮時代 女性 禮冠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75 쪽; 임수빈·김성남, 「불화로 살펴본 조선시대 거두미의 시원에 관한 고찰」, 『한국미용 예술학회지』 7권 3호(2013), 131-134쪽 등이 대표적이다. 김지연(2008: 75)에서는 “‘거두미=큰머리’라는 점은 거의 공통되는 의견”이라 하였고, 임수빈·김성남(2013: 132)에서는 “시대순으로 열거하면 ‘舉頭美, 舉頭尾-巨頭味-大頭里, 大末里, 큰머리, 떠꾸지가 된다”고 하였다.

나타나는 것은 ‘거두미’와 관련된 한자표기가 한자어를 표기한 것인지 차자표기를 한 것인지, 차자표기를 한 것이라면 ‘큰마리’와 관련된 훈독표기인지 ‘거두미’라는 이칭을 음차표기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6)</sup> 이 부분에 대해 국어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복식사에서 ‘거두미’의 명칭에 대한 고민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15)-(16), 그리고 복식사의 견해를 고려할 때 국어학적으로 가장 의구심이 드는 것은 ‘큰마리’와 ‘大首’의 관계이다. 복식사에서는 ‘큰마리’와 ‘大首’는 지시물 자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하여 ‘大首’는 최고의 의례용 머리로 보고 있다. 복식사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지 않는다면 국어학적으로는 ‘큰마리’와 ‘大首’가 짝이 되는 어휘, 즉 동일 지시물에 대한 표기로 파악하기 쉽다. 즉, 19세기에 한글본에서 ‘큰마리’로 표기한 것을 ‘大首’로 차자표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큰마리’, ‘거두미’, ‘大首’의 관계에 대해 복식사적인 측면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17)</sup>

복식사에서 동일한 복식에 대한 이칭 혹은 이표기로 파악한 것들 가운데 국어사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제시한 ‘드른누비’와 ‘廣縷飛’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복식사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듯하지만 이 둘을 이표기 혹은 차자표기의 관계로 보는 것은 국어학적인 입장에서 다소 문제가 될 만하다. ‘드른누비’와 ‘廣縷飛’에 대해서는 박부자(2013)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어 이 글에서도 박부자(2013)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이와 관련하여 국어학적으로도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거두미머리(巨頭味—)’를 “큰머리(예식 때에, 여자의 어머머리 위에 얹던 가발)의 잘못. ‘큰머리’를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다”라고 하여 ‘巨頭味’를 ‘큰머리’의 차자표기로 보았다. ‘味’의 처리가 다소 부당이고 다른 이표기는 ‘큰마리’와 관련짓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巨頭’를 고려할 때 이러한 해석은 고려해볼 만한 것이다. 또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語學篇 解説』(태학사, 2001)에서도 한글본 『가채신금사목(加髻申禁事目)』을 해설한 내용 중 “‘어유미(於由味), 거두미(巨頭味), 가리마(加里々)’와 같은 차자표기”라고 언급하고 있어 ‘巨頭味’가 ‘거두미’를 음차표기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는 ‘거두미’가 ‘擧頭美, 擧頭尾, 巨頭味, 去豆微’의 여러 표기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해 보인다. 후자의 입장이라면 동일 지시물의 명칭인 ‘거두미’와 ‘큰마리’의 관계를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

17) 복식사에서 ‘큰마리’와 ‘大首’가 동일 지시물을 가리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 국어학 쪽에서 다시 동일한 의미의 고유어 ‘큰마리’와 한자어 ‘大首’가 이와 같이 다른 지시물을 가리키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17) ‘드문누비’와 ‘廣縷飛/闊縷比’

가. ‘闊縷比’는 드문누비를 표현한 것(유선희, 2009: 56)

나. 『역어유해』의 내용과 누비옷 실물 자료를 참조할 때 포백적으로 한 치[一寸] 내외의 넓은 간격으로 누벼진 누비를 의미하며 중누비 표기에 기준하여 ‘광누비(廣縷緋)’라 할 수 있을 것(박성실·김해자·김인규, 2007: 35)

(18) ‘드문누비’와 ‘廣縷飛/闊縷比’의 예

가. 白紬廣縷比厚綿赤古里一 《楚山日記 大斂具》

나. 白紬闊縷比赤古里一 《楚山日記 小斂具》

다. 納的 중누비 《역어유해 하: 6b》, 行的 드문누비 《역어유해 하: 6b》

라. 빅명두 납작누비봉디 일 《당미가례시일기 15a》 / 白冊紬 廣縷飛袴 一 《가례시절차》

(18가)와 (18나)에 제시한 ‘闊縷比’와 ‘廣縷比’에 대해 유선희(2009: 56)는 드문누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고, (18다)의 ‘드문누비’에 대해 박성실·김해자·김인규(2007: 35)에서는 “광누비(廣縷緋)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복식사에서는 대체로 ‘드문누비’와 ‘廣縷緋, 闊縷比’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박부자(2013: 126-130)에서 문제제기한 것처럼 ‘廣縷緋’와 ‘드문누비’를 연결해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며, 국어사적으로도 ‘廣縷緋’와 ‘드문누비’가 직접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廣’이 (18라)에서처럼 ‘납작’에 대한 차자표기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드문’의 차자표기로 쓰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18다)의 ‘드문누비’가 (18가), (18나)의 ‘廣縷緋, 闊縷比’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sup>18)</sup>

마지막으로 동일한 복식에 대한 여러 이표기 혹은 이칭 가운데 어느 것을 대표형으로 삼을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이런 문제는 한자어 복식명에서 많이 대두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자어 복식명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한자음을 가진 다른 한자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나 그간 복식사에서는 이들 이표기 가운데 실록이나 의궤에 나온 기록을 우선으로 하여 대표형을 삼아왔던 듯하다. 그러나 ‘녕초’의 경우처럼 실록에서도 ‘永綯, 領綯, 寧綯’ 등 여러 표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속에서 대표형을 결정해야 한다. ‘驚衣’와

18) 이와 관련하여 박부자, 「‘누비’ 관련 명칭의 국어사적 고찰」, 『한국복식』 31호(2013) 125쪽에서는 (18라)에 제시한 ‘납작누비’와 ‘廣縷飛’의 대응을 국어사적으로 검증하여 ‘廣縷飛’가 ‘납작누비’의 차자표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였다.

‘露衣’도 마찬가지이다.

## V. 복식명 연구의 과제

그동안 이루어진 복식명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어사적으로나 복식사적으로나 성과만큼 한계도 분명했다. 이에 이 장에서는 ‘명칭’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와 ‘실물’에 대한 복식사적 연구가 유기적인 관계에 있지 못함으로써 부딪힌 한계를 극복하고, 복식명에 대해 앞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해야 할지 그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복식 관련 자료에 대한 기초 연구 및 DB 구축

기초 연구를 통해 복식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DB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 국어사적 측면에서의 복식명 연구는 국어사 자료가 주 대상이었고 보다 확장된 것이 의궤 정도에 불과했다. 최근 궁중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기록해놓은 여러 기록에서 복식명에 대한 기술 혹은 차자표기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DB가 구축되어 학계에 제공된다면 국어사뿐 아니라 복식사 연구자들에게도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DB를 구축할 때에는 먼저 복식사에서 언급되어온 복식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다만, 복식사에서는 복식의 대표 표기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글표기의 경우에는 관독에 오류가 있거나 자료에 기록된 표기 그대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해당 원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복식명의 DB 구축은 복식 관련 자료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또 복식 관련 자료에 대한 기초 연구는 복식사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 복식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황문환 외(2011, 『정미가례시일기 주해』)와 “『정미가례시일기』 궁중 복식 문화 사전”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작업이 대상 자료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복식명을 대상으로



국어사적인 연구를 할 때에는 복식 관련 자료에 대한 기초 연구가 큰 도움이 된다. 복식명 각각을 이해할 바탕이 되기도 하고 복식명 전반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 2. 복식명에 대한 개별 어휘사 연구

복식 관련 자료에 대한 기초 연구와 DB 구축을 통해 복식명 각각에 대한 개별 어휘사적 연구도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그간 복식명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 특히 개별 어휘사적 연구가 매우 미흡했던 것은 복식명에 대한 이해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명(物名) 연구의 본령은 각 명칭에 대응되는 실물을 정확히 찾아주고 어휘가 어떻게 변화하여 현재에 이르렀는지와 같은 개별 어휘사의 기술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식과 관련된 개별 어휘에 대한 통시적 연구, 즉 어휘사적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복식명 각각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가 보다 정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자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약명의 경우에는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처럼 향약명이 집중된 자료가 존재하고 음식명의 경우에는 『음식디미방』처럼 음식명이 집중된 자료가 다수 존재하지만 복식명의 경우에는 복식명이 집중된 자료가 알려진 바 없다. 국어사 자료 중에서는 머리 모양에 대한 어휘가 집중된 『가채신금사목(加髻申禁事目)』 정도가 전부이다. 이 외의 한글 자료를 대상으로 복식명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하나하나 자료를 뒤지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복식사에서 꾸준히 인용되고 있는 『스절복식직장요람』과 『국기복식소선』<sup>19)</sup>이 한글 자료이고 여기에 국어학 분야에서 최근에 와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궁중발기를 덧붙일 수 있다. 궁중발기가 대부분 19세기 자료이기는 하나 다행히 한문본과 한글본이 공존하는 자료가 있어 복식명을 연구하는 데 많은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궁중발기와 『스절복식직장요람』, 『국기복식소선』 같은 자료는 이른 시기의 복식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복식명에 대해

---

19) 이 두 자료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복식사에서는 이 두 필첩을 아울러 “순화궁첩초”라 하기도 한다. 오륜대박물관에도 이와 유사한 필첩으로 『국기복식소선』과 『법복스절복식』이 소장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복식사에서처럼 실록과 의궤, 기존의 여러 국어사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인간에 나타난 복식명은 당시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자연어이기 때문에 복식명에 있어서도 그 가치가 남다르다.<sup>20)</sup> 여기에 덧붙여서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명칭 혹은 어원에 관해 기록해놓은 것이나 민간에서 작성한 물목 등의 고문서들까지 참조할 수 있다면 연구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 3. 현대국어 사전 수정 및 보완

복식명에 대한 개별 어휘사적 연구를 통해 현대국어 사전의 기술도 보완해야 한다. 현대국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복식명의 기술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정 및 보완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떨잠’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머리꾸미개의 하나. 큰머리나 어여머리의 앞 중심과 양옆에 한 개씩 낀다. 떨새를 붙인 과관 같은 것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떨잠’과 관련된 어휘로는 ‘반자’도 확인할 수 있다. ‘반자’는 해당 한자를 ‘斑子’로 제시하고 “떨잠을 속되게 이르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그러나 의궤뿐 아니라 『덩미가례시일기』와 같은 궁중발기류를 살펴보면, ‘떨잠’과 관련된 기록은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고 ‘반즈’로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을 참고한다면, ‘반자’가 오히려 ‘떨잠’에 해당하는 궁중어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자의 경우도 ‘반자’를 한자어로 보고 ‘斑子’로 제시하고 있지만, ‘반자’는 본래 떨새를 붙인 과관을 가리키던 부분 명칭이 제품의 전체 명칭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한자는 본래 ‘板子’에서 온 것이고, 현대국어 사전의 ‘斑子’는 ‘반즈’의 차자표기일 뿐이다. 이와 같이 현대국어 사전에서 복식명을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라도 복식명에 대한 깊이 있는 국어사적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복식명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가 이와 같이 진행된다면 그 성과는 복식사 연구를 보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덩미가례시일기』에서 ‘에우미들리’가 확인되는데 현대국어 사전에는 ‘어염다리’로 올라 있는

---

20) 사대부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직물, 의복 등의 복식과 궁중발기, 의궤에 나타난 복식명을 통해 왕실에서 사용하는 직물, 의복 등 복식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 어휘 사용 양상의 차이도 드러날 수 있다.

바로 그것이다. ‘에우미들릭’의 ‘에우미’가 “사방을 빙 둘러싸다”라는 뜻의 동사 어간 ‘에우-’와 관련된 것으로 머리의 바깥 부분을 둘러싸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는 사실이 보완된다면 ‘명칭’을 통해 ‘실물’ 연구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우미’는 ‘어유미, 어여미, 염이’로도 나타나는데 이들이 모두 국어학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에우미, 어유미, 어여미, 염이’가 모두 동일 지시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 복식사 연구의 결론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 4. ‘명칭’과 ‘실물’의 종합적 연구

실물과 유리된 채 진행되는 명칭에 대한 연구는 진정한 물명 연구라 할 수 없다. ‘물명’이란 ‘사물의 명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와 실물에 대한 복식사적 연구의 결과가 일치할 때 비로소 물명 연구가 명실상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복식명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와 복식사적 연구의 한계 또한 두 학문 분야의 학제 간 연구 속에서 극복할 수 있으며 개별 복식 관련 어휘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 복식 관련 자료에 대한 기초 연구 및 DB 구축 또한 복식사와 국어사의 학제 간 연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 VI. 맺음말

이 글은 복식명에 대하여 어휘로서의 복식명 연구, 즉 국어사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실물로서의 복식명 연구, 즉 복식사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지닌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복식명 연구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국어사적 측면에서는 그간 복식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복식사적 연구를 제대로 참조하지 못함으로써 드러난 한계를 지적하였다. 반면 복식사적 측면에서는 각 명칭이 어떤 복식의 명칭인지와 같은 단순한 기술에서부터 명칭의 의미와 실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한 논의, 동일한 복식에 대한 이칭과 이표기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논의까지 그 깊이와 성격이 실로 다양했다. 그러나 복식사의 연구 성과를 전제로 명칭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거나 과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복식사와 국어사의 학제 간 연구 속에서 복식 관련 자료에 대한 기초 연구 및 DB 구축과 같은 토대 작업이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복식과 관련된 개별 어휘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가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질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강길운,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1991.
- 강순제·김은정, 「문헌을 통해 본 조선시대 방한모 명칭에 관한 연구」. 『服飾』 58권 7호 통권 126호, 2008, 133-150쪽.
- 高福男, 「韓國服飾用語의 變遷史的 研究: 實物服飾 用語를 中心으로」. 『韓國民俗學』 14권 1호, 1981, 1-40쪽.
- 국립고궁박물관 편, 『영친왕 일가 복식』. 국립고궁박물관, 2010.
- \_\_\_\_\_, 『왕실문화도감: 조선왕실복식』. 국립고궁박물관, 2013a.
- \_\_\_\_\_, 「조선 왕실 왕비와 후궁의 생활」. 2013년도 국립고궁박물관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2013b.
- 권혜진, 「당시에 관한 연구: 궁중발기와 유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남정, 「조선시대 치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 김민수 편,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1997.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 金完鎭, 「이른 時期에 있어서의 韓中 言語 接觸의 一斑에 對하여」. 『語學研究』 6권 1호, 1970, 1-16쪽.
- 김완진, 「한국어 속의 이른 시기의 중국어 차용어」. 『알타이학보』 3권 1호, 1991, 15-22쪽.
- 金用淑, 「宮中用語 및 風俗 採集報告書(1)」. 『아시아여성연구』 5, 1966, 279-289쪽.
- 金用淑, 『朝鮮朝 宮中風俗研究』. 一志社, 1987.
- 김은정, 「朝鮮時代 男女共用衣服에 관한 연구: 衣服 名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_\_\_\_\_,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복식명칭 분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개화기부터 광복 이전까지 신문, 잡지에 기록된 외래어 복식명칭에 관한 연구」. 『服飾』 60권 2호(통권 141호), 2010, 20-34쪽.
- 김은정·강순제, 「의복명칭의 분화를 통해 본 조선시대 복식문화 고찰」. 『服飾』 53권 4호(통권 77호), 2003, 149-162쪽.
- \_\_\_\_\_, 「조선시대 이동용 한자 학습서를 통해 본 복식명칭 연구」. 『服飾』 54권 4호(통권 85호), 2004, 97-111쪽.
- \_\_\_\_\_, 「조선시대 외국어학습서를 중심으로 본 복식명칭 연구」. 『服飾』 56권 6호(통권 105호), 2006, 155-172쪽.
- \_\_\_\_\_, 「조선시대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복식명칭의 동의 관계 분석」.

- 『服飾』 57권 5호(통권 114호), 2007, 140-150쪽.
- 김은정·조우현·강순제, 「외국어학습서를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복식관련 외래어 명칭에 관한 연구」. 『服飾』 59권 4호(통권 133호), 2009, 155-172쪽.
- 김지연, 『朝鮮時代 女性 禮冠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金鎮玖, 「老乞大의 服飾研究」. 『服飾文化研究』 4권 1호, 1996, 1-14쪽.
- \_\_\_\_\_, 「보선과 청의 名稱 研究」. 『服飾文化研究』 6권 3호, 1998, 378-382쪽.
- \_\_\_\_\_, 「잇스매와 함스매의 명칭」. 『服飾文化研究』 7권 2호, 1999a, 220-224쪽.
- \_\_\_\_\_, 「好袖의 名稱」. 『服飾文化研究』 7권 3호, 1999b, 357-361쪽.
- \_\_\_\_\_, 「박통사 언해의 복식연구」. 『服飾文化研究』 8권 3호, 2000, 493-511쪽.
- \_\_\_\_\_, 「조선시대 복식용어 연구 1-의복관련용어를 중심으로」. 『服飾文化研究』 9권 3호, 2001a, 523-531쪽.
- \_\_\_\_\_, 「조선시대 복식용어 연구 2-직물관련용어를 중심으로」. 『服飾文化研究』 9권 3호, 2001b, 532-538쪽.
- 김춘일, 「낙선재본 『홍루몽』의 중국어 어휘 차용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南豊鉉, 「15世紀 諺解 文獻에 나타난 正音 表記의 中國系 借用 語辭 考察」. 『국어국문학』 39-40호, 1968, 39-86쪽.
- \_\_\_\_\_, 「中世語에 있어서의 借用語 表記」. 『국어국문학』 68-69호, 1975, 285-287쪽.
- \_\_\_\_\_, 「國語 속의 借用語: 古代國語에서 近代國語까지」. 『국어생활』 2, 1985, 6-22쪽.
- 노주연, 「朝鮮時代 宮中과 士大夫의 婚禮 節次와 婚禮服 研究: 女子服飾을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韓國漢字語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1997.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冠帽와 首飾(민속학자료 제4집)』. 단국대학교출판부, 1993.
- \_\_\_\_\_, 『名選(上)』.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3.
- \_\_\_\_\_, 『名選(中)』.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a.
- \_\_\_\_\_, 『靴·鞋·履』.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b.
- \_\_\_\_\_, 『名選(下)』.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 리득춘, 「[로-박 언해]의 중국어 차용어와 그 연혁」. 『한글』 215, 1992, 5-28쪽.
- 민족문화추진회, 『신편 국역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한국학술정보(주), 2006.
- 박부자, 「『당미가례시일기』의 어휘(2) -器血과 단위명사를 중심으로-」. 『藏書閣』 19집, 2008, 111-138쪽.
- \_\_\_\_\_, 「'누비' 관련 명칭의 국어사적 고찰」. 『한국복식』 31호, 2013, 112-135쪽.
- \_\_\_\_\_, 「연간 자료의 어휘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국어사연구』 18호, 2014,

45-78쪽.

- 朴聖實, 『조선시대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_\_\_\_\_, 「회장저고리와 견마기 재고」. 『美術資料』 54, 1994, 42-63쪽.
- \_\_\_\_\_, 「朝鮮朝 치마 再考-16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服飾』 30호, 1996, 295-306쪽.
- 박성실·김해자·김인규, 『누비장』.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박성실·조효숙·이은주,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 박혜진, 「조선시대 후기 궁중 패물 연구-《궁중발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語學篇 解説』. 태학사, 2001.
- 서정원, 『『老乞大』 刊本들을 통해 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석주선, 『韓國服飾史』. 寶晉齋, 1980.
- \_\_\_\_\_, 『續韓國服飾史』. 고려서적, 1982.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蕭悅寧, 「『譯語類解』와 『方言類釋』에 나타난 近代漢音系 借用語」. 『口訣研究』 29, 2012, 43-95쪽.
- 송미경, 「조선시대 과두에 관한 연구」. 『服飾』 60권 1호, 2010, 76-90쪽.
- 신동숙, 「노리개考: 삼작노리개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심연옥, 『한국 직물 오천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_\_\_\_\_,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고대직물연구소출판부, 2006.
- 심연옥·이채원, 『금박장』. 민속원, 2009.
- 안애영, 「1882(壬午)年 王世子 嘉禮 연구: 『가례도감의궤』와 「궁중발기」를 중심으로」. 『장서각』 제22집, 2009, 107-137쪽.
- \_\_\_\_\_, 『임오(1882)년 가례 왕세자·왕세자빈 복식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여찬영 외, 『조선시대 의궤 용어 사전 I-왕실 전례 편』. 경인문화사, 2012.
- 오선희, 「조선시대 여자비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오창명, 「『儀軌』에 나타나는 借字 表記 研究(1): 조선 후기 服飾 어휘를 중심으로(1)」. 『韓國服飾』 15호, 1997, 29-64쪽.
- \_\_\_\_\_, 「物名의 借字表記 研究(1) -『원신을묘정리의궤(園辛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호, 2001, 53-86쪽.
- \_\_\_\_\_, 「『儀軌』에 나타나는 고유 服飾 어휘 -17세기 의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3호, 2010, 5-33쪽.

- 유선희, 「전통누비 및 구성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敎文社, 1982.
- \_\_\_\_\_, 『한국복식사연구』.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5·2002.
- 윤양노, 「조선시대 의복구성 용어에 관한 연구 -『才物譜』를 중심으로-」. 『韓服文化』 8권 3호, 2005, 139-144쪽.
- 이강로, 「차자표기(借字表記)에 대한 연구-상방정례(尙方定例) 권1의 진상 의류를 대상으로」. 『한글』 181호, 1983, 87-118쪽.
- 李基文, 「근세중국어 차용어에 대하여」. 『亞細亞研究』 8권 2호, 1965, 193-204쪽.
- \_\_\_\_\_, 「蒙古語 借用語에 대한 研究」. 『語學研究』 21권 1호, 1985, 1-14쪽.
- \_\_\_\_\_, 「한국어 속의 만주통구스제어 차용어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3권 1호, 1991a, 23-33쪽.
- \_\_\_\_\_,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1991b.
- 이명은, 「『궁중별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장서각 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민주, 「궁중발기를 통해 본 왕실의 복식문화: 임오가례시(壬午嘉禮時) 생산체제를 중심으로 이민」. 『韓服文化』 14권 2호, 2011, 121-140쪽.
- \_\_\_\_\_,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 이선재·고미연, 「朝鮮時代 女性的 頭飾에 관한 연구」. 『生活科學研究誌』 12권 1호, 1997, 95-119쪽.
- 이성순, 「服飾 語彙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성희, 「朝鮮後期 露衣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승현, 「땡기에 관한 연구: 땡기의 종류와 특징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양순, 「『順天金氏墓簡札』에 나타나는 服飾 關聯語 研究」. 『泮矯語文研究』 14호, 2002, 125-151쪽.
- 이은주, 「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 『韓國衣類學會誌』 12권 3호, 1988, 363-371쪽.
- \_\_\_\_\_, 「19세기 조선왕실 여성의 머리모양」. 『服飾』 58권 3호, 2008, 19-33쪽.
- \_\_\_\_\_,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服飾』 61권 10호, 2011, 135-150쪽.
- 이은진,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종덕·조정아, 「의성김씨 학봉 종가 인간에 나타난 물명 연구」. 어문생활사연구소 2013년도 국내학술회의 “자료의 재해석과 어문생활사 연구” 발표자료집, 2013, 129-149쪽.
- 이화숙, 「『자경년진작정례의궤』의 어휘와 번역 양상」. 『국어교육연구』 제44호, 2009, 321-352쪽.
- 임수빈·김성남, 「불화로 살펴본 조선시대 거두미의 시원에 관한 고찰」. 『한국미용



- 『예술학회지』 7권 3호, 2013, 129-140쪽.
- 장숙환, 『전통 장신구』. 대원사, 2002.
- 장인우, 「조선 중기 의생활 어휘에 대하여: 순천김씨묘 언문간찰 중심」. 『服飾』 제52권 4호, 2002, 1-13쪽.
- 조정아, 「의성김씨 학봉 종가 인간에 나타난 복식명 연구」. 『藏書閣』 제32집, 2014, 136-166쪽
-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88.
-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東明社, 1949.
- 崔玉子, 「李朝 宮中 佩物件記에 대한 考察」. 『服飾』 3, 1980, 1-28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12·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황문환·김주필·박부자·안승준·이욱·황선엽,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황문환·박부자·이명은·이은주, 「『정미가례시일기』 궁중복식문화사전(Ⅰ) 결과 보고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_\_\_\_\_ , 「『정미가례시일기』 궁중복식문화사전(Ⅱ) 결과 보고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황문환·안승준, 「『정미가례시일기(丁未嘉禮時日記)』의 書誌的 考察」. 『藏書閣』 19집, 2008, 5-39쪽.
- 황유선, 「조선시대 저고리류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小倉進平, 「朝鮮語における外來語」. 『民族學研究』 7권 1호, 1934.

## 국 문 요 약

이 글은 복식명에 대하여 어휘로서의 복식명 연구, 즉 국어사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실물로서의 복식명 연구, 즉 복식사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지닌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복식명 연구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국어사적 측면에서는 그간 복식 관련 어휘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복식사적 연구를 제대로 참조하지 못함으로써 드러난 한계를 지적하였다. 반면 복식사적 측면에서는 각 명칭이 어떤 복식의 명칭인지와 같은 단순한 기술에서부터 명칭의 의미와 실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한 논의, 동일한 복식에 대한 이칭과 이표기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논의까지 복식사적 측면에서의 명칭에 대한 언급은 그 깊이와 성격이 실로 다양했다. 그러나 복식사의 연구 성과를 전제로 명칭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거나 과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복식사와 국어사의 학제 간 연구 속에서 복식 관련 자료에 대한 기초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은 토대 작업이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복식과 관련된 개별 어휘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가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투고일** 2014. 9. 24.

**심사일** 2014. 11. 10.

**게재 확정일** 2014. 11. 26.

**주제어(keyword)** 복식(costume), 복식명(costume name),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차용어(loanword), 한자어(Sino-Korean word), 차자표기(borrowed notation)

# Abstracts

## Current Status of Research and Tasks on the Names of Costume **Pakh, Bu-ja**

This paper examines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in the study of costume names in two different aspects respectively – first, as words in terms of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and second, as objects in terms of the history of costumes – and proposes the tasks for future research. In the aspect of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there exist hardly any adequate studies on words relevant to costume, especially because they have not properly referred to the researches in the history of costumes. On the contrary, there are abundant studies on costume names with various depths and characters in terms of the history of costumes, from simple accounts for costume names to organic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and the meaning of costume names and attempts to apprehe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names and transcription of the same object. However, there are also several cases of misunderstanding or un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costume names solely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in the history of costumes.

With these performance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there needs to establish the foundations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such as performing fundamental researches on the materials relevant to costumes or constructing database in this field, and call for the further research on individual words for costumes in Korean lexical history.